

# 반려동물 친화형 공동주택 주거계획 특성 연구

반려동물 친화형 공동주거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Plan for Pet-friendly Collective Housing

Focusing on the case analysis of pet-friendly collective housing

주 저 자 : 안영명 (Ahn, Young Myung)      서일대학교 스마트자동차공학과  
ymahn@seoil.ac.kr  
공 동 저 자 : 김휘경 (KIM, Hwi Kyung)      서일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https://doi.org/10.46248/kids.2021.4.171>

접수일자 2021. 11. 25. / 심사완료일자 2021. 12. 17. / 게재확정일자 2021. 12. 25.

본 논문은 2021년 서일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Abstract

In the current era when about 15 million people live together with companion animals, the pleasant symbiosis with companion animals is settled down as a phenomenon beyond a simple trend. Especially, in the aspect of residence, the existing human-centered residential space shows various problems with enjoying such pleasant life with companion animals. Thus, it would be necessary to research/apply various elements of housing plan for coexisting with companion animals, pet owners, and neighbors(pet owners or non-pet owners), seeking for the quality of mentally/physically-healthy life, and forming the pleasant residential environment without any conflicts with neighbors. Thus, this study established the elements of companion animal-friendly housing plan specialized in apartment housing by analyzing the cases of companion animal-friendly apartment housing, and then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As a result, the elements of companion animal-friendly housing plan were classified into interior planning, outdoor planning, and facility planning, and the interior planning elements were more than half, so the consideration of interior planning was handled as important. Also, classifying the elements of companion animal-friendly housing plan following the order of importance, they were divided into four essential elements, necessary elements, and selective elements. Lastly, the types of companion animal-friendly apartment housing plan were classified into companion animal consideration type, resident convenience type, and community reinforced type, and the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were analyzed. Such results of classifying the elements/types of companion animal-friendly apartment housing plan, and analyzing the consequential characteristics could be used as the theoretical basis of various relevant researches on interior design, furniture, and facilities in the future.

## Keyword

Pet, Companion Animal, Pet-friendly Residence, Residential Plan

---

## 요약

반려인 1500만 시대, 반려동물과의 쾌적한 공생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주거의 영역에서 볼 때, 인간을 중심으로 계획된 기존의 주거공간은 반려동물과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반려동물, 반려인, 이웃 거주민(반려인 또는 비 반려인)이 함께 공생하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의 질을 추구하고, 나아가서는 이웃과도 갈등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형성하도록 하는 다양한 주거계획의 요소의 연구 및 적용이 필요하다. 이에 반려동물 친화형 공동주택의 사례의 분석을 통해 공동 주거에 특화된 반려동물 친화형 주거계획 요소를 정립하고 그 특성 및 유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반려동물 친화형 주거계획 요소를 실내, 실외, 설비계획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실내계획 요소가 절반 이상으로 실내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반려동물 친화형 주거계획 요소를 중요도 순으로 분류하여, 필수요소 4가지와 더불어 필요요소, 선택요소로 구분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친화형 공동주택계획의 유형을 반려동물 배려형, 거주자 편의형, 커뮤니티 강화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반려동물 친화형 공동 주거계획의 요소 및 유형분류, 특성분석 결과는 앞으로 공간 및 인테리어, 가구, 설비 등의 다양한 관련 연구의 바탕이 되는 이론적인 토대로서 활용될 것이다.

---

## 목차

###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이론적 배경

- 2-1. 반려동물과 주거환경 문제
- 2-2.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반려동물의 특성
- 2-3. 반려동물 친화형 주거로서의 요인

## 3. 반려동물 친화형 공동주거 특성 분류

- 3-1. 주거계획 분석 기준 설정
- 3-2. 반려동물 친화형 주거계획 요소 추출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20년 말 기준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하고, 반려인은 1,448만 명으로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sup>1)</sup>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하는 문화가 점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펫 휴머니즈 트렌드는 반려동물의 양육 여부를 떠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펫팸족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그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나 현대 사회현상인 고령화와 1인가구의 증가라는 트렌드와 더불어 최근 펜데믹이라는 현상이 가져온 소통 부재 및 인간 소외로 인한 상실감, 고독감 증대 등의 원인으로 인해 앞으로의 반려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양적 규모가 커지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보험, 호텔, 유치원, 헬스케어, 펫테크(Pet-Tech) 등 다양한 사업 영역이 등장하는 등 관련시장의 다양화, 세분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주거시장에서의 입장으로 볼 때, 반려인구를 타겟으로 하는 새로운 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현재 주거관련 시장은 기존의 '공급자 주도

- 3-3. 반려동물 친화형 주거 유형 분류

## 4. 반려동물 친화형 공동주택 사례분석

- 4-1. 분석방법과 범위
- 4-2. 사례분석
- 4-3. 소결

## 5. 결론

## 참고문헌

시장'이 아닌 소비자의 거주수준의 향상, 주거의식의 변화로 '소비자 주도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웰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개인의 취미 문화생활이 다양화되면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거모델이 요구되고 있다.<sup>2)</sup> 하지만 현 주거 환경은 거주자인 인간을 중심으로 계획되어 반려동물과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소음, 털, 냄새, 음식물 훼손, 배설물 등의 문제는 건강, 위생, 편의 등 반려동물과 거주민 자체에게도 여러 문제를 유발시킬 뿐 아니라,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의 경우, 위와 같은 문제점 등으로 인해 이웃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주거시장의 변화와 반려동물 수요의 확대는 새로운 주거 모델의 개발을 필요로 하며, 주거에서의 반려동물과 거주자를 동시에 주거환경의 주체로 상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문제점에 관한 해결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공동주거 중심의 한국의 주거 문화에서 반려동물, 반려인, 이웃 거주민(반려인 또는 비 반려인)이 함께 공생하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의 질을 추구하고, 나아가서는 이웃과도 갈등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형성하도록 하는 다양한 주거계획의 요소의 연구 및 적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반려동물 친화형 공동주택의 사례의 분석을 통해 공동주거에 특화된 반려동물 친화형 주거계획 요소를 정립하고 그 특성 및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간 및 인테리어, 가구, 설비 등

1) 황원경 외,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1, p6 - 통계청 <2019 인구주택 총조사>,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등록정보 현황 그리고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 자료로 활용해 추정한 수치

2) 서울시정개발 연구원, 2004

의 다양한 디자인적 관련 연구로 전개 시킬 수 있는 기초연구의 목적을 지닌다.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공동주거에서의 반려동물과 반려인 혹은 이웃 거주민들 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간 및 디자인에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서,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관련문헌 및 선행연구를 기반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주거공간에서의 반려동물간의 행동 및 생물적 특성을 정리한다. 이를 공동주거에 종합·적용하여 반려동물이 주거환경에 주는 요소를 정리하여 기본 개념을 잡고 연구의 필요성을 증명한다.

둘째, 반려동물 친화형 공동주거의 사례분석을 위한 기준 및 항목을 설정하기 위하여 반려동물과 거주자의 주거 스트레스 관련 항목을 비교한다. 관련 항목 중 공동 주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을 토대로 세부 항목을 도출하여 종합하여 반려동물 친화형 공동주거 사례 분석요소를 도출한다.

셋째, 반려동물 친화형 공동주거 사례분석을 통하여 각 사례를 유형화 시키고, 사례간의 특성을 비교하여 종합한 후 소결을 도출한다.

넷째,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관점에서의 니즈와 함께 공동주거 분석에서 도출된 유형화 특성을 분석하여 결론을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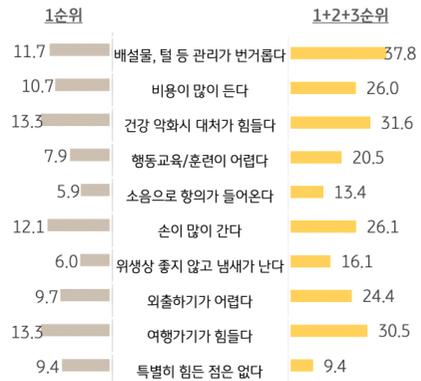
사례 분석의 대상은 서울 및 수도권 등 도심지의 반려동물 친화형 공동주거를 표방한 오피스텔과 빌라 등 공동주거의 형태를 가진 주거형식을 그 조사 범위로 한정한다. 사례 연구의 범위는 반려동물과 거주자 중심의 실내 환경과 실외 공간 및 설비로 그 영역을 제한하고 있으며, 공동주거 건물 내/외 반려동물 특화 MD 및 서비스 등은 제외하고 있다.

## 2. 이론적 배경

### 2-1. 반려동물과 주거환경 문제

반려동물에 관한 최근 보고서인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황원경 외)'에 따르면, 반려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이 있으며,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배설물이나 털 관리가 번거롭다', '반려동물이 아플 때 대 처가 힘들다', '자유롭게 여행 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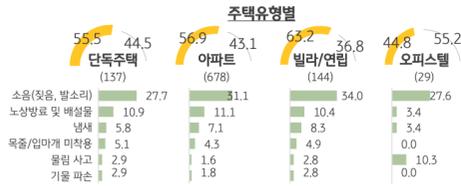
수 없다'는 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복수선택으로 설문한 결과 질문에 응답자의 37.8%가 '배설물, 털 관리가 번거롭다'로 꼽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 밖에도 소음에 대한 항의(13.4%), 위생과 냄새 문제(16.1%) 등 반려동물과의 공동생활에서의 문제점 혹은 주거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 반려동물 양육 시 애로사항

또한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는 타인과의 분쟁이다. 반려동물 양육 과정에서 타인과의 분쟁을 경험한 반려인은 56.9%로 절반이 넘었다. 주요 분쟁 사유로는 반려동물의 '짖거나 걷는 소리와 같은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30.8%로 가장 많았다.<sup>3)</sup> 그밖에도 '노상 방뇨와 배설물', '냄새' 등 다양한 이유로 타인과의 분쟁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주택 유형에 따라서는 단독주택(55.5%)의 경우 보다 '아파트'(56.9%)의 비중이 다소 높았으며 특히 '빌라나 연립주택'(63.2%)에 거주하는 경우에 분쟁을 경험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공동주거인 '오피스텔'(44.8%) 거주자는 분쟁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오피스텔이 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좋은 젊은 세대, 직장인 등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점, 전용 주거 목적이 아닌 점 등을 미루어보아 다른 유형에 비해 생활 패턴 및 주거환경 등이 다른 공동주거와 비교하여 다소 다를 수 있음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도 '소음', '개 물림 사고' 등 다른 공동주거와 마찬가지로 반려동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3) 황원경 외,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1, p49



[그림 2] 주택유형별 반려주거에서 타인과의 분쟁경험

이렇게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느끼는 애로사항들과 타인과의 분쟁 소지는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어려운 물리적 환경과 더불어 아직은 부족한 반려동물과의 공생에 관한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반려동물을 포기하거나 재 입양 시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나 이러한 현상이 반려동물이 유실 및 유기로 이어지며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등 반려동물을 키우기 힘든 주거환경이라는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반려가구의 주거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반려동물 친화형 주거 모델이 제안되고 있지만, 주로 전원주택과 같은 단독주택에서 적용하기 쉬운 형태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 특히, 일반적인 도심지 주거형태, 공동주거에는 적용이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특히, 대부분 자가가 아닌 전세나 월세로 사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반려동물 친화형 주거요소 및 요구 등에 대한 선택권이 더욱 좁아지는 현실이다.

## 2-2.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반려동물의 특성

반려동물과 공생하며 생기는 여러 가지 주거환경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인간과 반려동물 사이에 존재하는 다른 생물적, 행동적 특징 그리고 사회적 특징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주거환경에서의 반려동물 및 거주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행동적 특성과 생물적 특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의 행동적 특성을 반려동물 행동학을 바탕으로 발달행동, 섭식행동, 배설행동, 파괴행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 중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적 특성들을 아래 [표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반려동물의 행동적 특성

	반려동물의 행동적 특성
발달 행동	일반적인 음성교신의 수단으로 영역을 나타낼 때 짖음 후각이 발달하고 주변 사물에 관심이 많아 냄새를 맡으며 돌아다님
	창문이나 문이 살짝 열려져 있을 경우 열고 나갈 수 있음
	호기심으로 냄새를 맡거나 씹어서 살피는 버릇, 유치에서 영구치로 바뀔 때, 지루할 때나 운동 부족, 애정 결핍에 의한 욕구 불만의 표시
	실내에서만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아, 밤중에 짖거나 심한 장난을 치
섭식 행동	먹이를 규칙적으로 주고 있는데도 산책에 나가서 먹은 것은 직접 먹이를 찾는 습성
배설 행동	수컷의 영역표시나 오줌 등 표시 행동
	분리불안이 있을 경우, 집에 홀로 남겨졌을 때 짖거나 울부짖음
파괴 행동	정기적인 발톱갈이, 긁기를 통해서 근육을 풀고 파괴 단련하며 발바닥에서 분비되는 냄새를 발라 영역표시
	낯선 사람을 보면 경계심이나 공포심으로 물거나 핥릴 수 있음
	일반적으로 낯선 사람이나 그들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동물에 대해 공격적으로 반응

반려동물의 생물적 특성은 반려동물과 거주자의 생활환경에서 위생 및 건강에 밀접한 관계를 맺는 중요한 측면 중 하나로서 냄새, 털, 피부, 먼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거주자가 청소 및 유지 관리를 통해 꾸준한 주의 및 관리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의 생물학적 특성이 주거환경에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표2]와 같다.

[표 2] 반려동물의 생물적 특성

	반려동물의 생물적 특성
냄새	냄새에는 반려동물 몸에서 직접 나는 것과 변이나 오줌 등의 배설물에서 기인하는 냄새가 있음
털 피부	털이 무치면 통풍이 좋지 않아 피부병의 원인 일광욕을 하면 곰팡이의 번식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되며 심리적인 안정효과를 줌
	털갈이는 실외에서 지내는 개가 년 2회 하는 반면 실내에 거주하는 동물은 일 년 내내 털이 빠지는 편
먼지	먼지나 진드기 같은 외부기생충이나 곰팡이 균에 노출되기가 쉬우므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음
	외부기온이 따뜻해지면, 벼룩이나 진드기의 활동이 활발해져 산책 시 개의 몸에 옮을 수 있음

한 예로, 이웃과의 분쟁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인 '짓

거나 울부짖는 소음의 경우 단순한 교신을 위한 행위, 불리불안, 공포나 경계심, 위기상황 등 발달상의 행동, 파괴 본능적 행동 등 다양한 행동적 특징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같은 반려동물의 행동적, 생물적 특성들은 거주환경에서 문제점이 되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주거생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위와 같은 반려동물의 특성들은 행동교정 및 사회화 교육 등을 통해서 해결 할 수도 있지만, 반려동물에게 본능적인 행위를 억제하기 보다는 방음, 차음에 유리한 공간구조, 마감, 디자인 디테일, 설비 등 주거 계획의 관점에서 고려를 하는 반려동물친화 요소의 적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 2-3. 반려동물친화 주거로서의 요인

반려동물 친화형 주거란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가 살기 좋은 주거공간을 말한다. 실제로 반려동물의 대부분의 생활은 외부보다 실내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인간이 느끼는 주거 안정성과 반려동물이 느끼는 주거 안정성은 차이가 있다.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은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예민한 감각 등으로 인해서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는 환경에서도 불안감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친화형 주택은 이러한 문제들을 시설, 구조, 인테리어 등 공간 디자인적인 방법을 통해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계획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반려동물 주택의 전문가 노니카 히데키에 따르면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4,000여개 실에 거주하는 반려견의 수명을 조사한 결과 평균 18.9세 로 일본 반려견의 평균수명에 3세 가까이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반려 동물 친화형 주택이 반려동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삶의 질뿐만 아니라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 보고하고 있다.<sup>4)</sup>

현 주거 환경은 인간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반려동물의 입장에서 주거 환경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거주자 입장에서 반려동물을 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거환경에서의 스트레스 및 문제점 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과 거주자 측면에서 나누어 현 주거환경 스트레스와 주거계획 요소에 대해 살펴보아야 하며 이를 다음[표 3]<sup>5)</sup>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4) 반려견주택연구소 네이버카페, 반려동물 공생주택에 살아야하는 이유
- 5) 김선아, 애완동물과 공생하는 주거계획에 관한 연구,

[표 3] 주거환경 스트레스와 주거계획 요소

	주거환경 스트레스	주거계획 요소
반려동물	바닥이 미끄러워서 반려동물이 자주 미끄러진다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재
	외부산책 시, 외부요인으로 다칠까봐 걱정된다.	사람과 함께 안전하게 산책 할 수 있는 조경
	비만이 되지 않도록 반려동물을 운동 시킨다.	
	외부산책 시, 쓰레기나 풀 등을 먹고 자주 토한다.	낙하 사고 방지시설
	베란다나 창가에서 떨어질까 위험을 느낀다.	
	주방에서 조리도구로 인해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그럴 뻔 한 적이 있다.	주방으로 접근을 금지 할 수 있는 장치
	집안의 콘센트나 전선 등에 합선될 위험이 있다.	콘센트나 전선 등의 전기 설비 마감
	집안에 반려동물이 혼자 있을 경우, 분리불안으로 파괴 행동을 일으킨다.	방문을 닫아도 왕래가 가능한 전용도어 설치
	반려동물 피부병이 자주 생긴다.	햇볕을 쬐 수 있는 베란다
	목욕 시, 반려동물이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된다.	실내 온도조절 가능 공간 및 설비
거주자	현관문이 열리면, 현관 밖으로 뛰어 나간다.	현관 앞 펜스
	손님 방문 시 반려동물이 갑자기 뛰어오르거나 짖어서 손님들이 놀란 적이 있다.	반려동물 전용 피난 공간 및 설비
	장기간의 여행이나 가족 간의 회식 등 반려동물이 혼자서 집을 지켜야 하는 경우, 반려동물이 걱정된다.	감시시스템 반려동물 위탁소 자동 급식기
	반려동물 때문에 청소로 자주 하는 편이다.	청소하기 용이, 교체가 쉬운 마감재, 현관 근처의 세면 공간
	외부 산책 후 실내로 들어오는 것이 불편하다.	주동에 설치된 세면대
	환기를 해도 반려동물 냄새가 난다.	환기 시스템 자연환기형 개방형 구조
	옷이나 소파, 바닥 등에 털을 수시로 제거한다.	중앙진공청소기 시스템
	외부 산책 시, 배설물 처리가 곤란하다.	외부산책로에 쓰레기통 설치
	반려동물 물품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전용 수납 창고
	반려동물을 목욕시키는 일은 힘들다.	높이조절 목조, 고정사위기, 미끄러지지 않는 욕실 바닥
반려동물의 이동에 따라 방문개폐에 신경 쓰인다.	동물전용 도어 설치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p.42-43

	주거환경 스트레스	주거계획 요소
거주자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반려동물과 같이 있을 때 이웃과 마주치면 신경 쓰인다.	엘리베이터 애완동물 표시등
	반려동물이 실내에서 짖으면 이웃의 눈치가 보인다.	층간, 세대 간 방음
	외부 산책 시 사람들이 욕하거나 반려동물을 꺼릴까봐 사람들을 피해서 산책을 하는 편이다.	반려동물 전용 옥상정원, 도그런
	반려동물 때문에 마감재를 유지관리하기가 힘들다.	전용 마감재 선정

### 3. 반려동물 친화형 공동주거 특성 분석

#### 3-1. 주거계획 분석 기준 설정

반려동물 친화형 공동주거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성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자는 주거계획의 방법-목적-대상 3단계로 분석기준을 설정한다.

첫째, 주거계획의 방법으로 실내계획, 실외계획, 설비계획으로 세 가지 분류 기준을 나눈다. 이는 각 주거 스트레스 요인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지에 관한 기본적인 분류로서 주거계획의 범위를 한정하는 동시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배변활동으로 인한 실내 환기 및 탈취에 관한 주거 스트레스는 ‘개방형 구조’ 및 ‘환기가 쉬운 창문 위치 설정’이라는 실내계획적인 요소로 해결할 수 있는 동시에 ‘자동 환기 시스템’이라는 설비 측면에서의 해결 또한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이 두 가지 요소 중 단독으로 또는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다.

둘째, 주거계획 요소의 목적으로 반려동물 및 거주민의 건강성에 기인한 요인, 청결 및 위생에 관련된 쾌적성, 거주자의 생활의 편의를 위한 요인인 편리성, 반려동물과 반려인 혹은 거주민들 간처럼 상호작용으로 인한 요인인 사회성,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성, 주거생활 및 다양한 제반 요건의 편의 도모를 위한 관리성의 요인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거계획의 대상은 주거계획요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을 일컬으며 반려동물과 거주자의 두 가지 측면과 더불어 공동주거라는 특성이 반영되는 지점으로 이웃 거주민들(반려인, 비 반려인 포함)의 관점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놓고 각각의 관점에

서 주거계획요소를 분류하여 유형화 한다.

위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친화형 주거계획요소의 추출과 분류 및 유형화를 통해 사례분석의 기준과 틀을 마련한다.

#### 3-2. 반려동물 친화형 주거계획 요소 추출

반려동물과 거주자에 관점에서 다양한 주거환경의 스트레스를 문제해결의 요소로서 적용 시킬 수 있다. 특히, 주거계획요소의 항목들은 다양한 방법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며 공간 설계 및 인테리어 등 공간 디자인에 관련된 실내계획 요소, 외부 공간 및 공공영역 등의 실외계획 요소를 통해 고려 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설비 및 시설의 측면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 앞선 이론 고찰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친화형 주거계획 요소를 해결방법의 분류의 따라 아래[표5]<sup>6)</sup>와 같이 정리 하였다.

[표 5] 반려동물 친화형 주거 계획 요소 분류

구분	항목	반려동물 친화형 주거계획 요소
실내 계획	A1	반려동물 용품을 수납할 수 있는 창고
	A2	햇볕을 쬐 수 있는 베란다
	A3	청소하기 쉽거나 교체기 쉬운 마감재
	A4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재
	A5	현관 가까이 반려동물을 씻길 수 있는 공간
	A6	편히 씻길 수 있도록 고정 시킬 수 있는 샤워기
	A7	층간, 세대 간 방음 시설
	A8	자연환기가 잘되는 평면
	A9	반려동물이 드나들 수 있는 전용 도어
	A10	반려동물이 쉴 수 있는 전용 공간
실외 계획	B1	외부 산책 후 주동에 설치된 세면시설
	B2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단위 내 시설
	B3	반려동물 동반 전용 엘리베이터
	B4	전용 산책로 및 도그런 공간
설비 계획	C1	적당한 양의 사료나 물을 주는 자동급식 시스템
	C2	반려동물을 관찰 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
	C3	실내 탈취 및 환기를 위한 환기 시스템
	C4	먼지나 털을 제거할 수 있는 청소 시스템
	C5	온도조절이 가능한 공간 및 설비
	C6	특정 공간으로 접근을 금지 할 수 있는 울타리
	C7	낙하 사고 방지 울타리나 망
	C8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
	C9	안전을 위한 콘센트나 전선 등의 전기설비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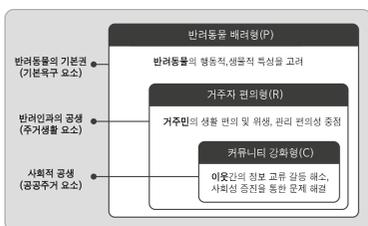
6) 김선아, 애완동물과 공생하는 주거계획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p.42-43

### 3-3. 반려동물 친화형 공동주거의 유형 분류

공동주거에서의 반려기구의 주거환경은 반려동물과 반려인 또한 그 이웃들과 공생하는 공간이라는 물리적 영역을 중심으로 이를 둘러싼 인식적, 환경적 상황들을 모두 포함하여 고려해야한다. 따라서 공동주거에서 관점에서 볼 때 반려동물 친화형 주거계획 요소들이 어떠한 관점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범주에 속하는지 특성을 분류하여 유형화 할 수 있다.

주거계획의 대상과 목적이 앞선 2-3장 [표3] 주거환경 스트레스와 주거계획을 기준으로 반려동물을 배려한 요인, 거주자의 편의를 위한 요인, 이웃 거주민들 간의 사회적 요소를 중심으로 다루는 유형으로 총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었다. 일례로 '반려동물 친화형 바닥 마감재(A4)'의 경우 반려동물의 입장에서 안정적 보행으로 인한 관절의 건강상의 요소, 사고방지의 안정상의 요소로 작용한다. 이와 동시에 반려인에게는 배설물에 대한 오염방지 등의 쾌적성의 요인, 오염 및 부식으로 인한 교체에 용이 등 관리성의 요인이 작용한다. 또한 세대 간인 이웃의 관점에서는 반려동물의 발소리가 주는 층 간, 세대 간 소음 발생 억제라는 쾌적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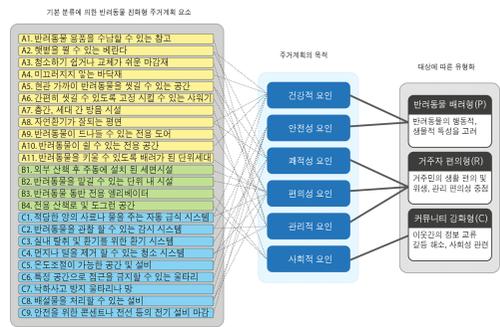
이처럼 반려동물 친화형 주거계획의 요소들은 복합적인 요인들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이 세 가지 분류의 관계는 반려동물 친화형 주거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모든 요소가 반려동물을 고려하여 주거요소가 계획되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로 반려동물 배려의 관점이라 볼 수 있다. 단, 거주민과 주거생활의 공유를 위한 요소와 단위 주거를 넘어 이웃 간의 관계 및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징을 중심으로 개별 요소를 구분 할 수 있었으며, 세 가지 유형 분류의 관계에 관한 다이어그램은 아래 [그림3]과 같다.



[그림 3] 반려동물 친화형 주거 요소 유형화 분류 다이어그램

첫 번째 반려동물 배려형(P)은 반려동물의 행동적,

생물적 특성을 고려하여 신체적 심리적 배려를 중심으로 주거계획요소를 계획한 경우이며, 미끄럼 방지 마감재(A4), 온도조절 설비(C5), 안전전기 설비(C9) 등의 요소를 들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거주자 편의형(R)으로 반려동물의 양육과정에서의 위생, 관리 등의 편의성에 중점의 주거계획 요소를 의미하며, 전용 샤워기(A6), 탈취 및 환기시스템(C3), 청소가 쉬운 마감재(A3) 등의 요소 등이 해당 된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강화형(C)은 이웃들(반려인) 간 정보 교류, 거주자(비 반려인) 간 갈등해소 등 사회적 요소 중점으로 계획된 주거요소이며, 전용 엘리베이터(B3), 층 간, 세대 간 방음(A7), 산책로(B4) 등의 요소를 예를 들 수 있다.



[그림 4] 반려동물 친화형 주거 요소와 특성의 관계

## 4. 반려동물 친화형 공동주택 사례 분석

### 4-1. 사례대상 선정 및 조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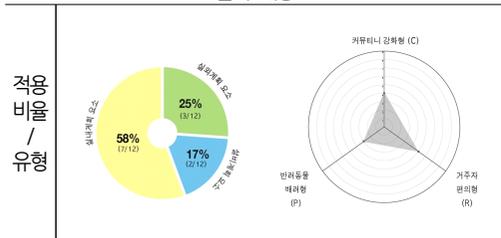
국내 반려동물친화형 공동주거 대상의 선정은 자체 홍보 및 방송 등을 통해 반려동물 친화형 공동주거를 표방하는 주택 중 본 논문의 연구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주거로 서울 및 수도권으로 도심지에 위치한 오피스텔 서울 팻앤스테이, 일산 수아주위드팻과 빌라 연립주택인 파주 여연재이다. 사례분석은 크게 실내계획, 실외계획, 설비계획이라는 세 가지 분류에 의해 각 항목들을 사진과 함께 그 요소를 정리하였으며, 각 요소를 반려동물을 배려형, 거주자의 편의형, 커뮤니티 강화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사례대상의 특징을 종합하여 서술하였다. 사례의 수집은 현장조사와 더불어 홍보 팸플릿, 분양정보 사이트, 인터넷 카페 및 커뮤니티, 방송촬영 영상 등 다양한 루트 통해 수집하였으며, 다소 모자란 부분은 거주자 직접 설문 혹은 방문을 통한 문의로 수집하였다.

## 4-2. 사례 분석

[표 6] 팻앤스테이 사례분석

대표 사진	내용				
		명칭	팻앤스테이		
		주거형태	오피스텔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8길 11			
	면적	대지 1,606㎡, 건축 492.46㎡			
규모	지하2층 지상12층 / 주거 149세대				
구분	사진	항목	요소	분류	
실내 계획 요소		논슬립 바닥 코팅	반려동물의 미끄럼 사고방지	미끄럼 사고방지	P
		차음 중문	세대 간 소음 방지	세대 간 소음 방지	C
		팻 특화 신발장	강이자용 외부용품 수납이 가능	외부용품 수납이 가능	R
		팻 전용 샤워실	샤워에 맞는 높이 및 배수구 특화	샤워에 맞는 높이 및 배수구 특화	R
		플리커프리 조명	반려동물의 눈을 보호해주는 조명	반려동물의 눈을 보호해주는 조명	P
실외 계획 요소		잔디운동장	산책 및 반려동물과의 여가 활동	산책 및 반려동물과의 여가 활동	C
		도그짐	반려동물의 운동을 위한 공간	반려동물의 운동을 위한 공간	C
		세족 시설	외부활동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외부활동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R
		코인세탁실	반려동물 물품 전용 세탁시설	반려동물 물품 전용 세탁시설	R
설비 계획 요소		팻 엘리베이터	반려주주인과 비반려주주인 분리	반려주주인과 비반려주주인 분리	C
		배변처리기	배변 처리하여 냄새 및 위생관리	배변 처리하여 냄새 및 위생관리	R
		초인등	소리에 민감한 반려동물들을 위한 초인등	소리에 민감한 반려동물들을 위한 초인등	P

분석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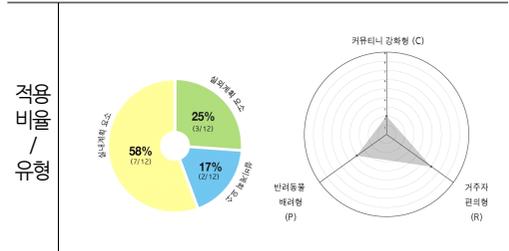


**특징 분석**  
 팻앤스테이는 반려친화형 공간계획에서 실외 계획요소에서 강점을 보였다. 특히, 잔디 운동장, 도그짐, 코인세탁실 등 다양한 반려동물과의 외부활동을 지원해주는 실외 요소를 두어 반려동물의 스트레스 해소 및 신체적 건강을 유도함과 더불어 반려인 간의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서로 간의 이해와 공감의 장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로 인한 다양한 거주자 간의 갈등요소를 물리적인 해결책에서 나아가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요소로서 갈등을 완화하려는 커뮤니티 강화형 중심의 유형으로 보인다.

[표 7] 수아주위드팻 사례분석

대표 사진	내용				
		명칭	수아주위드팻		
		주거형태	오피스텔		
	면적	대지 1,815㎡, 건축 1,168㎡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8길 11			
규모	지하7층 지상20층 / 주거 149세대				
구분	사진	항목	요소	분류	
실내 계획 요소		논슬립 바닥 코팅	반려동물의 미끄럼 사고방지	미끄럼 사고방지	P
		차음 중문	세대 간 소음 방지	세대 간 소음 방지	C
		리드후크	반려동물의 대기를 위한 목줄 걸개	반려동물의 대기를 위한 목줄 걸개	R
		반려동물 전용 샤워기	반려동물에 맞는 샤워홀더 설치	반려동물에 맞는 샤워홀더 설치	R
		징두리 벽	반려동물의 마킹, 긁음 훼손을 방지	반려동물의 마킹, 긁음 훼손을 방지	R
		반려동물 전용 가구	반려동물 맞춤형 침실, 캣타워 등	반려동물 맞춤형 침실, 캣타워 등	P
실외 계획 요소		눈보호 조명	반려동물의 눈을 보호해주는 조명	반려동물의 눈을 보호해주는 조명	P
		잔디운동장	산책 및 반려동물과의 여가 활동	산책 및 반려동물과의 여가 활동	C
		세족 시설	외부활동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외부활동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R
설비 계획 요소		배변처리기	배변 처리하여 냄새 및 위생관리	배변 처리하여 냄새 및 위생관리	R
		초인등	소리에 민감한 반려동물들을 위한 초인등	소리에 민감한 반려동물들을 위한 초인등	P
		전용 환기시설	털날림, 냄새를 위한 전용 환기설비	털날림, 냄새를 위한 전용 환기설비	R

분석 내용



**특징 분석**  
 수아주위드팻은 반려동물친화요소에서 실내 환경적 요소에 강점을 두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거주자 편의를 위한 측면으로 리드후크, 징두리벽, 차음 중문 등을 들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반려동물의 편의를 위한 측면으로 반려동물 전용 샤워기(침대), 펫도어, 눈보호 조명 등 반려견의 입장도 고루 고려되었다. 특히, 유형분석의 관점에서 볼 때, 해당 주택은 거주자의 편의형 주거 유형에 가까워 현대인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반려생활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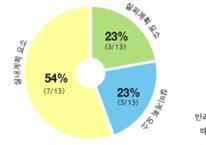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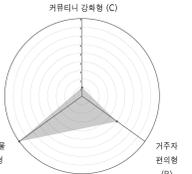
[표 8] 여연재 사례분석

대표 사진	내용		
		명칭	여연재
주거형태		공동빌라	
면적		대지 95㎡, 건축 75㎡	
주소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5-9	
규모		2동 총 14세대	

구분	사진	항목	요소	분류
실내 계획 요소		논슬립 타일 사용	반려동물의 고관절 고려 및 사고 방지	P
		사위기	실내, 복도, 옥상 등 공간 곳곳에 사위기 설치 청결 유지	R
		알루미늄 걸레받이	배변, 배설로 인한 오염 및 부식 방지	R
		펫룸	물청소가 가능한 실내 펫 전용 공간 구분	R
		눈보호 조명	반려동물의 눈을 보호해주는 조명	P
		펫 도어	외부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문	P
		1m상당 콘센트 위치	감전사고 방지	P
실외 계획 요소		하늘 정원	일조권 보장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P
		출입구 세족, 샤워 시설	외부활동으로 인한 오염물질을 제거	R
		현관 경사로	계단을 오르기 힘든 반려동물 배려	P
설비 계획 요소		접이식 옥외 피난 계단	재난 및 비상상황 시 펫 전용 탈출구	P
		드라이룸	세족 및 샤워 후 체온 유지	P
		에어라트론	환기 및 통풍을 위한 펫 공간 전용 실링팬	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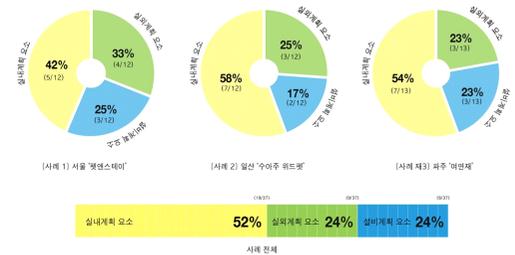
분석 내용

적용 비율 / 유형	분석 내용
	
특징 분석	<p>여연재는 반려동물 친화요소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주거계획 요소를 통한 배려의 계획이 중점이 되었다. 유형분석 그래프에서도 보다시피 반려동물 배려에 대한 항목이 최고 수치를 보인다. 특히, 그 방법적 접근 또한, 실내, 실외, 설비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낮은 층수와 소규모 빌라라는 점에서 제한적인 커뮤니티 등은 단독주택과 비슷한 이점을 갖는다</p>

### 4-3. 비교분석 및 소결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동물 친화형 주거계획 요소의 적용 방법 분류에 따른 비율은 실내계획(52%) > 실외계획(24%) = 설비계획(24%)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종합 결과를 볼 때, 실내계획이 절반 이상의 비율을 보였으며 반려동물 친화형 주거 요소에서 실내계획에 대한 중요도가 높다 판단할 수 있다. 단일 사례로 보았을 때, 서울 ‘펫앤스테이’ 사례의 경우 실내계획(43%), 실외계획(33%), 설비계획(24%)의 비율이 다소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다.



[그림 5] 주거계획 요소의 적용 방법 비율 종합

둘째, 반려동물 친화형 주거계획 개별 요소의 적용은 사례마다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세 가지 사례 대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요소와 차이를 보이는 요소를 적용 빈도에 따라 아래 표[9]와 같이 정리 할 수 있었다. 모든 사례 대상에 적용되어 있는 반려동물 친화형 주거계획의 필수요소는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재(A4), ‘전용 사위기(A6), ‘주동 입구 세면시설’ (B1), ‘전용 산책로’(B4)의 네 가지 요소였다. 이외에도, 필요요건(두 사례에 해당) 8가지, 선택요건(한 가지 사례에 만 해당) 10가지, 미적용 요소 3가지 요소로 분류되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친화형 주거계획 요소 항목 별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종합 결과를 미루어보아, 선택요소와 미적용 요소(1건 이하)의 항목에 설비계획 요소 부분이 많이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자동 급식기나 감시 시스템 등은 반려가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제품화 및 구매 수준 등 다양한 외적 요인이 작용되어 주거계획 단계에서 고려되기 보다는 개인의 기능 및 가격에 대한 선호도를 중심으로 구매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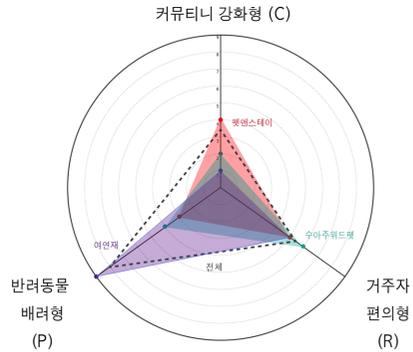
**[표 9] 반려동물 친화형 주거계획 요소의 적용 빈도**

구분	항목	반려동물 친화형 주거계획 요소
필수 요소 (3개)	A4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재
	A6	편히 씻길 수 있도록 고정 시킬 수 있는 샤워기
	B1	외부 산책 후 주동에 설치된 세면시설
	B4	전용 산책로 및 도그런 공간
필요 요소 (2개)	A8	자연환기가 잘되는 평면
	A9	반려동물이 드나들 수 있는 전용 도어
	A10	반려동물이 실 수 있는 전용 공간
	A3	청소하기 쉽거나 교체가 쉬운 마감재
	A7	층간, 세대 간 방음 시설
	B3	반려동물 동반 전용 엘리베이터
	C3	실내 탈취 및 환기를 위한 환기 시스템
	C8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
선택 요소 (1개)	A1	반려동물 용품을 수납할 수 있는 창고
	A2	햇볕을 쬐 수 있는 베란다
	A8	자연환기가 잘되는 평면
	A9	반려동물이 드나들 수 있는 전용 도어
	A10	반려동물이 실 수 있는 전용 공간
	B2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단위 내 시설
	C5	온도조절이 가능한 공간 및 설비
	C6	특정 공간으로 접근을 금지 할 수 있는 울타리
	C7	낙하 사고 방지 울타리나 망
C9	안전을 위한 콘센트나 전선 등의 전기설비 마감	
미 적용 (0개)	C1	적당한 양의 사료나 물을 주는 자동급식 시스템
	C2	반려동물을 관찰 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
	C4	먼지나 털을 제거할 수 있는 청소 시스템

또한, 선택요소에 해당하는 주거계획 요소들은 오히려 주택의 차별성으로 인지될 수 있었다. 파주 ‘여연재’의 경우 ‘반려동물 전용공간(A10)인 펫룸을 차별화 요소로 두어 홍보를 하고 있었으며, 서울 ‘핏앤스테이’는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단위 내 시설(B2)의 다양성을 부각시켜 거주자의 만족도를 이끌어 내고 있었다.

셋째, 반려동물 친화형 주거계획요소 특성별 유형 분류의 종합 분석은 아래 [그림 6]와 같다. 그 결과 각 사례 대상마다 특화되어 있는 유형이 다름이 확인되었다. 파주 ‘여연재’ 사례의 경우 반려동물 배려유형으로 반려동물의 행동적, 생물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계획 요소가 9가지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일산 ‘수아주워드펫’은 거주자의 편의와 쾌적성을 배려한 주거계획 요소가 총 6가지로 가장 비율이 높아 거주자 편의형 유형 주거로 볼 수 있었다. 또한, 서울 ‘핏앤스테이’ 사례의 경우 세 가지 유형이 골고루 반영된 사례로 보인다. 그 중 거주자 편의형의 요소가 5가지로 가장 높았으나, 사례 간 비교 결과 커뮤니티 강화요소가 4가지로 다른 사례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를 놓고 보았을 경우, 반려동물 배려형 요소(16) > 거주자 편의형 요소(11) > 커뮤니티 강화형 요소(7)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공동주거의 관점에서 중요한 요인인 커뮤니티 강화에 대한 요소의 개발과 그 적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그림 6] 반려동물 친화형 주거계획 요소의 특성별 유형 분석 종합**

## 5. 결론

본 연구는 반려동물 친화형 공동주택에서의 주거환경 요소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로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통하여 사례 대상 주택에서의 현실적인 적용 현황을 바탕으로 그 특성 및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반려동물 친화형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별 요소들은 주거환경 스트레스-해결방안-대상-목적 등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기술의 발달과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반려동물 친화형 주거환경 요소의 항목이 앞으로 꾸준히 바뀔 것이다. 사례조사 결과에 주거계획 요소로 적용된 사례들은 물리적인 솔루션들이 많았지만, 환기 시스템, 청소 시스템 등 기술의 결합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도입 중이었다. 이는 시대적 요구로서 AI의 발달, IoT의 보급 등 신기술과 결합한 다양한 공간, 제품 및 아이디어는 앞으로의 쾌적한 반려생활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둘째, 반려동물 친화형 주거환경 요소의 유형화로 활용된 세 가지 특성인 ‘반려동물 배려형’, ‘거주자 편의형’, ‘커뮤니티 강화형’은 공동주거 선택에 있어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양육 방식이나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 또는 직장, 수입 등 반려인의 현실적인 상황 등은 주거를 선택함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때, 반려인의 라이프스타일과 맞게 제시된 유형화와 세부 요소의 비교는 자신과 반려동물에 맞는 주거형태를 선택하는데 있어 정확하고 면밀한 고려를 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친화형 주택의 도입과 그 적용은 사회적인 합의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개선 등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사례 오피스텔의 경우, 특수 수요에 대한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듯해 아쉬운 느낌이 다소 들었다. 또한, 거주자의 입장에서 거주자와 회사와의 거리 및 거주지 주변 환경 등 주거지를 선정할 때 다양한 여건이 고려되는 측면을 생각 한다면 반려동물 친화형 공동주택의 대중적인 보급이 필요하다 생각되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리모델링, 개조 비용 지원 사업 혹은 관련 법 개정 등의 사회적 합의 단계를 거친 적절한 요구가 이 같은 유형의 주택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현황분석 사례분석 결과는 도심지역 공동주거를 대상으로 삼았으나, 이때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내/외적 요인, 예를 들어 세대 수의 차이 지역문화 및 소득수준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의 여러 상황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는 적은 사례 수로 인해 연구에 제한된 부분이 있음을 아쉽게 생각하며, 분석의 결과를 모든 공동주거에 적용하여 일반화하기에 다소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대상의 설문이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다각도적인 검증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을 통해 반려동물친화형 공동주거의 주거환경 요소의 분류 및 특징의 유형화 등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한 점은 앞으로의 다양한 반려동물과 주거환경에 대한 공간 디자인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연성찬, 반려동물 행동학, 애니컴, 2004.
2. 김선아, 애완동물과 공생하는 주거계획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3. 박지혜, 거주자 인식에 따른 반려견 공생 다가구 주거환경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9.
4. 이승은, 반려동물 보유 1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셰어하우스 공간디자인 제안,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논문, 2018.
5. 정지현, 반려동물 친화형 1인가구 공동주택 계획, 건국대학교 건축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6. 황원경 외,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1.
7. 반려견 주택 연구소 [www.korea-pethouse.com](http://www.korea-pethouse.com)